

데이콤
천리안

F A X 서 비 스

지정수신인 : 박원순변호사

신 : FAX/S225229994(박원순변호사)
 신 : KRS/DACOMHS/CROLLIAN/7J1116
 송신 : 94/02/02 17:48
 수신 : 94/02/02 18:47
 메시지 : 0690098631
 회 : 일본경찰에 고발하는 범죄자 처벌기회회전

송신자 : 116 (윤이항)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서울시 중구 장충동 1가 38-84 여성평화의집 B1
 전화 : 263-2862, 전송 : 263-2863

일자 : 94-2호

1994. 2. 2

수신인 : 일본사법관계 기자 및 관심있는 분
 재 : 일본군 '위안부' 전쟁범죄 책임자 처벌요구를 위한
 고소, 고발장 제출에 대한 기자회견

본 기자회견은 관심을 가지고 이문화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국시영 김사
 프경님과, 정신대문제에 한 일 양국의 현안문제로 다루된 지 거의 5년이 지
 났습니다. 일본정부는 현재까지 1,2차 조사보고서를 발표하고, 이 보고서에서
 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강제성을 일부나마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쟁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으며 같은 방법으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정신대 문제의식을 전도하셔서 시간이 갈수록 냉각되기 가고 있고, 이 문제의 해
 결을 촉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신대문제에 대한 관심과 법적, 실제 전쟁범죄
 에 대한 법적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음 기자회견을 유엔을 통한 정신대문제에 국제법적 해결을 모색해 나가고 있으며
 실제로 유엔을 통한 정신대문제에 국제법적 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 내으며 인
 권법규범을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일본, 미국, 일본정부가 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부당한 강제성을 인정할 이
 사건, 사안,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만들고 이행하도록 한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요구를 하는 고소, 고발장을 일본경찰에 제출함으로써 정신대문제 해결운동에 한
 전환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이기위해 그 책임자를 처벌을 하기 위한 것이 아
 니라, 이 제도가 전쟁범죄이다(일본이 인정하지 않고 있음) 누가 책임자인가들
 명백히 밝히기 위함입니다. 제도가 있었을 때, 누가 책임자인 고발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범죄적 성격인 전쟁 범죄였다고 민사의 관계로, 돈
 의 문제로, 금전 외국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발이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형사사건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한 순간이라도 법정에 선다면
 이기이이익의 인권을 강을 위한 법적, 제도의 발전에서 기다란 길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8년의 지난 세월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제도의 선
 령을 넘겨진 것이라면, 더욱이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56년을 기다려야 할지
 도 드물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법적, 제도를 통해서 전
 강범죄나 인권문제 인식의 계기로 추진 하겠다. 이 문제를 각성시켜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고소, 고발장 제출을 앞두고 다음과 같이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참석하셔서
 질문해 주시고, 또한 보도해 주셔서 정신대문제 해결운동에 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자회견 일시 : 1994년 2월 4일, 오후 2시
 장소 : 장충동 여성평화의 집 회의실
 참석자 : 고소, 고발장 제출자 일본 검찰방문 피해자들,
 정대협 실행위원

공동대표 이효재, 윤정옥, 김희원(직인생략)

악도:	◆ 동대문	동대문구 산철의	
		◆ 태극영	
			◆ 동대문 운동장
산악도:			◆ 산악운동
			◆ 항공과학
			◆ 이공과학의 집